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주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서 지 희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서 지 희

인 준 서

서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미혼자를 비혼으로 이끄는 결혼 기피,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자료에서 표본 추출한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취업 여성 464명을 대상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및 생활양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28.8세)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30.5세)보다 어렸다. 직업에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보다 ‘사무직’ 비율이 더 높고, ‘판매서비스직’ 비율은 더 낮았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1,316,900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1,816,100원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약 5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성 역할 태도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생활 양식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주당 약 2시간 27분의 가사 노동을 하였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주당 약 7시간 56분의 가사 노동을 하여 약 5시간 29분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생활비 비중이 39.6%였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46.7%로 더 큰 비중을 나타냈다. 저축에 있어 생활비 비중이 적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37.5%를 저축하여,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부모와 동거할 때, 취미·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 성 역할 태도가 고정적일 때, 연령이 감소할 때,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실제 결혼을 하면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많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연령이 여성의 생활 및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고, 소득이 더 많으며,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입지와 자유

로운 주거 생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더 나타내는 것은 높은 연령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결혼이 가져다 줄 속박감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의식주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부모와의 생활에서 결혼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선행 연구 고찰	6
1. 이론적 배경	6
1) 심리사회적 접근	6
2) 경제학적 접근	7
3) 패러사이트 싱글 개념과 결혼 지연 현상	9
2. 미혼취업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1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2
2) 부모 동거 여부	19
3) 성 역할 태도	20
4) 생활 양식	22
III. 연구 방법	26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26
1) 연구 문제	26

2) 연구 모형	27
2. 자료 및 표본	28
1) 자료	28
2) 표본	29
3. 자료 분석 방법	30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3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7
1.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	37
2.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	42
3.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5
V. 결론 및 제언	53
1. 요약 및 결론	53
2. 제언	5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한국의 25~39세 미혼자의 부모동거 추이	10
<표 2> 연구 표본	29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31
<표 4> 결혼에 대한 태도 변인 문항 및 신뢰도	33
<표 5>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37
<표 6>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	42
<표 7>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6
<표 8>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미래보고서(2008)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300년 뒤인 2300년에는 5만 명에 불과한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낮은 출산율은 만혼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승권(2005)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에는 기혼여성의 자녀 수 감소보다 미혼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보다 혼인연령 상승과 비혼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혼은 가임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고령출산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후천성 불임증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이 되어 유배우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혼 현상은 평생 비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만혼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요구된다.

만혼이 결국 평생 비혼으로 이어진다는데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지지하고 있다. Palomba 등(1997)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 연령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학력 고연령 여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삼식(2005)도 결혼을 원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 시기를 늦춘 결과, 교육수준 및 연령 등의 조건에서 적합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여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007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1.1세, 여자 28.1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및 0.3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990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이어갔다(통계청, 2008). 통계개발원(2009)의 분석에서는 2000~2005년 사이 미혼 여성 비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5년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20대 미혼자 비율은 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혼인연령 상승과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개인의 결혼 문제는 자신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 환경과 사회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 정부 대책은 주로 자녀 보육과 교육 문제 등을 통한 기혼자의 출산력 증대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자를 비혼으로 이끄는 결혼 기피,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와 대책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와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山田昌弘(야마다 마사히로, 1999)는 ‘패러사이트 싱글(パラサイトシングル, Parasite Sing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에게 의지하여 얹혀사는 미혼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미혼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얹혀사는 모습이 마치 기생충(Parasite)과 같다’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적당히 영양을 받아가면서 당당히 생활을 즐기고, 남녀 구분 없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미혼자를 가리킨다. 패러사이트 싱글의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성년이 되면 독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서구 사회에서도 ‘부메랑족’, ‘탕기 신드롬(Tanguy syndrome)’, ‘맘모네(Mammone)’, ‘네스트호커(Nesthocker)’, ‘키피

스(Kippers)' 등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져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관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미혼의 딸을 주거 독립시키는 것을 꺼려왔다. 이러한 사고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더불어 독립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얹혀사는 기간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모와의 동거는 당연시되고 있다.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는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며, 경제적, 주거적, 생활적으로 부모의 일상적인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생활 양식의 이점이 결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山田昌弘(1999)의 주장이다. 반면, 김정석(2006)은 우리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그 부모 세대가 결혼의 필수성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데, 미혼 여성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는 미혼자로 하여금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자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결혼의 필수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덜 받아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Glenn(1996)은 결혼의 지연과 같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는 성 역할 태도의 변화가 존재하고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무너지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가치관이 대두되면서 결혼의 지연과 같은 변화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안호용과 김홍주(2000)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 변

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변화와 가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는데 결혼과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가치관 및 성 역할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성 역할 태도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옥, 1999; 김은영 등, 1998; 김철자, 1977; 김혜향, 1969; 양명숙, 1996; 이동원 등, 1995)이거나, 결혼지연과 비혼에 대한 실태 조사(강은영, 2007; 김경신·이선미, 1998; 박민자, 2004; 이삼식, 2005)가 주를 이룬다. 이 연구들은 미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사고와 정서의 변화가 결혼을 지연시켜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의 원인으로서의 결혼 지연 문제에 접근해 왔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 이후 사회가 급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고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혼인 여부와 거주 형태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여성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혼자 혹은 독신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여 라이프스타일이나 심리적 성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 독신 동기와 인식, 독신 생활 만족도 등(김경원, 2005; 박충선, 2002; 윤소영, 2002; 이소영·황선진, 2003; 이정연, 2000; 장현숙, 2002)을 다루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현상적 측면에서 미혼 일인 가구의 특성이나 성향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미혼 취업 여

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심리사회적 접근

Erikson은 서구 문화 위주의 이론에서 벗어나 여러 문화에서 관찰된 결과를 토대로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발달이란 유전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전 생애적인 인간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Erikson에 의하면 발달은 단계적인 것으로 각각의 단계는 단계별로 발달 과업 대 발달 위기로 설명되며, 각 단계에서 개인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욕구와 사회의 외적인 요구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각 단계에서의 발달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에 따른다. 점성원리란 유전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숙에 의해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안범희, 2001). 즉, 각 단계는 전 단계들에서의 과업이 충분히 발달했을 경우에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의 성격이론에서 Freud가 초기 아동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했을 뿐 아니라 청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인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로 청년기의 커다란 과제이다. Erikson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가리켜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심리 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 moratorium)’이라 명명하였다. 페러사이트 싱글은 이러한 모라토orium 인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보호 없이는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캥거루족’과 그들의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로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가재산, 2007).

최근에 들어서부터는 청년 인구의 증가, 미혼의 장기화, 부모로부터의 이가(離家) 연령의 상승, 경제적 자립 시기의 연기 등 청년기로부터 성인기에 이행의 해체는 모라토리엄 심리를 청년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심리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小谷敏(코다니 사토시)(1999)는 모라토리엄을 갖고 사회에 나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신체의 조숙(早熟)과 입시 경쟁의 초기화, 그리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기의 초기화와 청소년 시대의 무한한 연기라는 ‘이행 해체’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라토리엄 심리를 본 연구의 대상인 미혼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거주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로 보았다.

2) 경제학적 접근

Becker(1973)는 “결혼은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결혼을 경제 현상으로 상정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과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결혼 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결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리적인 인간은 결혼에서도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결혼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미시 경제학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의 틀을 결혼에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을 확장하면,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이득이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Becker(1973)는 결혼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한 개인이 생활하는 것 보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이 일인당 식비나 주거비 등 생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규모의 효과’와 고통으로 인해 소득이 없게 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부모의 집에 얹혀살면서 규모의 효과는 일정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상태의 지속으로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보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대신 부모와 동거하면서 얻는 이득으로 상쇄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사 노동의 부담 경감, 여가 활동의 자유로움, 생활비 절약, 저축의 증대 등은 결혼을 선택할 경우 기회비용이 되어 결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에 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즉,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미혼의 경우 현재 생활이 주는 만족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경우에만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미혼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의 장점인 친밀감 형성과 재생산 등이 주는 만족도가 클 때 결혼을 선택할 것이며, 현재 대인, 상호적 친밀감에 대한 더 큰 욕구나 자녀 생산에 대한 욕구가 없을 경우,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미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김경원 · 김태현, 2005).

결혼은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결혼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으로 인한 지불 비용보다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현재 거주 형태와 생활 양식이 비용 또는 이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패러사이트 싱글 개념과 결혼 지연 현상

패러사이트 싱글은 1997년 일본의 사회학자 山田昌弘에 의해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서비스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미혼자를 가리킨다. 山田昌弘은 이들을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명품 소비를 즐기며 지금의 풍요를 유지하지 위해 독립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과 비슷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도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로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 자녀세대를 일컬어 ‘캥거루족’이라 한다(네이버 백과사전, 2009). 주요 선진국에서는 18~24세 젊은층의 50% 정도가 독립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80%가 넘는 젊은층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30대가 되어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山田昌弘, 1999).

우선, 우리나라의 25~39세 미혼 남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규모와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5, 2000,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혼인상태, 연령, 세대 구성에 따른 부모 동거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1995년 178만 명에서 2000년에는 224만 명, 2005년에는 274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미혼자들의 부모 동거율도 20대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 한국의 25~39세 미혼자의 부모 동거 추이

단위: 만 명(%)

연령구분	부모 동거 미혼자 ¹⁾					
	1995년		2000년		2005년	
	남녀전체	여성(%)	남녀전체	여성(%)	남녀전체	여성(%)
25-29세	135	44(32.5)	163	59(36.1)	174	74(42.5)
30-34세	33	7(21.2)	49	12(24.4)	73	22(30.1)
35-39세	10	2(20.0)	12	3(25.0)	27	7(25.9)
합계	178	53(29.7)	224	74(33.0)	274	103(37.5)

¹⁾ 부모 동거 가구원 중에서 미혼 상태에 있는 인구.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통계.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고도성장 경제에서 저성장 경제로 이행한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도 패러사이트 싱글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키퍼스’, ‘네스트호커’, ‘탕기 신드롬’과 같은 각국의 신조어가 공통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의 부모와의 동거 거주 형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이 되었으나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 젊은 층이 각국 공통의 현상이 되면서 이들 계층을 가리키는 ‘포스트 청년기’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현재 포스트청년기에 해당되는 세대는 어린 시절(청소년기)을 소비 자본주의 속에서 보내 왔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을 절실히 체감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퇴생’, ‘은둔형 외톨이(引き籠もり,引きこもり, ひきこもり, Social withdrawal)’ 등 체제 탈출이나 체제 거부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프리터(free arbeiter)’, ‘패러사이트 싱글’, ‘백수’ 등 포스트 청년기적인 현상은 30대까지 연기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 등 고등 교육 단계로의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포스트 청년기 현상은 학교 체제 안

에 머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山田昌弘(1999)는 패러사이트 싱글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 미혼자의 결혼기피, 결혼지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부모와의 동거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점으로 결혼 동기가 약화되어 결혼이 지연되고, 결혼의 지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한국의 미혼 취업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보고자 한다.

2. 미혼취업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란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유영주(1984)는 이를 ‘제 2의 탄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결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결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결혼 의향’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김영옥, 1999; 김은영 등, 1998; 김철자, 1977; 김혜향, 1969; 양명숙, 1996; 이동원 등, 1995)가 조사 당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영옥(1999)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이후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였으며, 이 연구도 정작 결혼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여대생이 지니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실태 조사에 불과하다. 결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미혼자의 결혼보다는 기혼자의 결혼 생활 적응 및 결혼 만족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많아 다소 결혼적령기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 결혼지연으로 이어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김경신·이선미, 1998; 김정

석, 2006; 박경숙 등, 2005; 이동원 등, 1995)가 성차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어 성별 이외의 요인의 결혼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 결혼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의향, 결혼 연령 및 시기, 결혼 이행 여부 등의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실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혼 여성의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연구(강은영, 2007; 박경숙 등, 2005; 조희금 등, 2008)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혼 취업 여성의 대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 및 계급적 관계를 반영하는 개인의 생각으로, 실제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통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김모임(1973)은 대도시, 준도시, 농촌에 거주하는 17세~50세에 이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결혼연령 및 출산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지식, 또는 실재가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은기수(1995)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사용하

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해 나갈 때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 규범과 순서 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한국인의 결혼 및 가족 생활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반면에 여자는 규범적 연령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滋野(시게노)와 大日(다이니치)(1997)는 연령과 연령 2차 항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여성의 결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결혼선택에 정(+)의 효과, 연령 2차 항은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 2차 항의 효과는 일정 연령인 28세 이후를 경계로 해서 결혼 선택에의 연령의 효과는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삼식(2005)은 고연령층의 미혼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고연령층 일수록 이미 결혼한 계층이 미혼인구에서 이탈함으로써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녀들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비교한 김정석(2006)은 미혼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적어지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연령과 결혼 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에 있어서 연령 규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성에게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Lee 등(2006)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가 낮았다. 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35세에서 44세의 고연령 미혼 집단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결혼관을 나타내거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결혼의향이 적어진

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이행할 확률이 높지만, 일정 연령 이후로는 결혼을 이행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대체로 28세 이전까지는 결혼연령규범에 의해 결혼이행이 점차로 증가하지만, 28세를 넘으면 결혼적령기를 넘겨 결혼으로 이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2) 교육수준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시기는 늦어진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유경, 1990; 양재모 등, 1980; 이영훈, 1977). 김모임(1973)의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비가 높아질수록 역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ony & Hogan, 1991).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남자보다 힘든 현실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관련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Goldsheider & Waite, 1986).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교육과 결혼이라는 전이가 같은 시간대에서 시간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이인수, 1994).

Beets(1997)도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동 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결혼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즉, 교육을 통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오히려 결혼 선호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oon(1990), Noriko와 Choe(1991)도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는 이와 달리 보고하고 있는데, Choe 등(1997)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혼의 사회 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이삼식, 2006). 또한 김정석(2006)도 미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결혼 의향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구화된 결혼관을 나타내거나, 결혼 시기가 지연되거나, 결혼 선호도를 낮추거나, 결혼을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혼인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교육수준과 결혼 이행, 의향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3) 직업

직업이 소득 및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이거나, 결혼 행동과 관련해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므로(Oppenheimer, 1988), 많은 선행 연구들이 소득과 교육수준 외에도 독립적으로 직업군에 따른 결혼 시기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취업 여성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낮은 지위의 직업군에 속한 경우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Teachman et al., 1987)고 한다.

최새은과 옥선화(2003)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 연령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을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무직의 5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기혼여성의 초혼 연령을 비교한 결과 여성은 신중간 집단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초혼 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사와 교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 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신중간 집단에 속할 때가 근로 집단에 속하거나 무직인 경우보다도 빨리 결혼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배우자를 원하는 추세 속에서(Lloyd & South, 1996),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 의료 보조직, 교사와 같은 하위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중간 집단의 직종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 시장에서 빨리 선택되어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추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진다고 속단할 수 없게 한다.

박경숙 등(2005)은 결혼 시기별 코호트(cohort)가 남녀 결혼 시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최근 코호트인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고위·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사무직 여성의 초혼 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직업의 종류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시기, 초혼 연령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직업일수록 결혼 시기가 유의미하게 늦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업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남성에 의한 영향이 미쳤을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4) 거주 지역

최순(1972)과 박경애(1993)의 가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로 인

한 사회 변동 중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지적하며, 도시화가 증가 할수록 미혼율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미혼율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김모임(1973)은 도시 거주일수록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김승권(200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타 지역 거주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높게 보였다.

이수진(2005)은 미혼 상태를 지속하거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결혼 상태의 변화를 겪은 남녀 표본을 추출하여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거주 지역은 여성 표본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 여성들이 광역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결혼 선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의 결혼 이행이 더 낮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도시 거주 여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 거주 변수가 미혼의 결혼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도시 거주자의 결혼 이행이 지방 거주자보다 낮았으며, 결혼관이 서구화되었음을 나타냈고, 결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월 평균 본인 소득

소득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와 함께 결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 시기 결정의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Lloyd & South, 1996; South, 2001).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일종의 지참금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쉽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결혼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바가 없으므로 여성의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Anderson et al., 1987; Teachman et al., 1987). 국내 연구로 최새은과 옥선화(2003)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 때 초혼연령이 늦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소득의 경우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도 있다(Sweeney, 2002).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과 결혼과의 관계는 집합적 수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만, 개인 자료에 기초한 시계열적 연구들에서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데 이 같은 현상은 집합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해당 변수들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Oppenheimer et al., 1997).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부정적이거나, 결혼 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일부 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6)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사회적 계층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계층은 자녀의 자원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높은 계층일수록 부모가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기를 독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자녀의 결혼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적어도 빠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Axinn & Thornton, 1992; Carlson, 1979; Coony & Hogan, 1991; Koball, 1998; McLaughlin & Lichter, 1997; South, 2001).

반대로, 이인수(1994)는 개인의 결혼 전이 시기가 개인이 속한 가족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연구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 코호트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하위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결혼시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Teachman et al., 1987). 또한 김보경과 김한곤(2005)의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집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요약하자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체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이 지연된다는 주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결혼이 지연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일 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결혼 적령기에 미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부모 동거 여부

Scott과 Tilly(1975)는 19세기 유럽에서 젊은이들의 생활에서 가족의 이득(family interest)이 개인의 이득보다 우위에 있었고 자녀 결혼의 연기는 가족전략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Spagnoli(1983)도 역시 19세기 프랑스의 릴르(Lille) 지역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들이 20세를 훨씬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그 지역의 만혼 패턴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樋口(히구치)와 阿部(마사히로)(1999)는 결혼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동거를 설명 변인으로서 분석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동거

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김정석(2006)은 미혼 남녀의 현재 거주 형태에 따른 결혼 의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 가구에 사는 것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 남성은 단독 가구 거주가 결혼 의향과 무관하지만, 미혼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미혼여성의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개인주의적 선택에 따른 결혼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혼자의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권미애·김태현, 2004; 김은진, 2001; 박소진, 2007; 이진하, 최연실, 2006; 임유진, 2008)는 미혼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을 통한 대학생의 진로 결정이나 부부의 결혼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미혼여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거주 형태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3) 성 역할 태도

성 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한다(Bohannon & Blanton, 1999). 즉, 성 역할 고정 관념이 작용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

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확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이동원 등(1995)은 성 역할 모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고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하는 대학생보다 유동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결혼 회피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성 역할관과 결혼관에 있어서 서로 낮은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성 역할관이 대체로 진보적이면, 결혼관에서도 상관관계 정도는 낮으나,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인희(2002)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 원인을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된 중산층 가족의 생존위기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가치관과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의 지연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라는 행동의 변화에 가치관의 변화라는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삼식(2006)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성 분업적 역할 규범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연령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 참여의 기회 확대 등으로 고정적인 성 역할 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실제 결혼생활은 “Marriage Package”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성 역할 관념에 있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여성보다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여성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역할 부담이 전가되는데 대한 부담으로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의

경우 결혼을 미룬다고 볼 수 있다.

4)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축적된 것이 없어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 자녀 간 경제적 자원 교류, 자원 이전(문숙재·김지연, 2006; 배희선, 1999; 송은경, 2005)에 대한 논의와 앞서 언급된 미혼 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의 일상적인 교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통한 결혼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차선택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 노동 시간

한경혜와 윤순덕(1994)은 도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을 파악하고자 서울 및 경인지역의 시 단위이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친부모 중 적어도 어느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는 221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은 손자녀 돌보기, 집안 청소, 세탁, 부엌일, 집 봐주기, 주택비 절감, 자녀 교육에서의 도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용은 경제적·심리적·가사일 부담, 사생활 부족, 생활 시간 차이, 행동 제약, 의견 충돌, 집의

협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혜택과 비용 각각의 평균이 3.11, 2.41로 비용보다는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현 등(1996)은 도시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 기대도 및 가족의 참여도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미혼인 여성은 가족원 모두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기를 원하고, 특히 배우자가 가사 노동을 분담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가정 생활에 대한 가사 노동 분담 기대치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즉 가상적인 기대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한 후에는 또 다른 기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지했다.

조은희(1996)는 가구원의 가구에 대한 경제적 공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사에 대한 공헌의 척도로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아들, 딸들 간의 가사노동 분담을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며, 부모들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하는 쪽이라면 자녀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hite와 Rogers(1997)는 부모와 공동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녀보다 더 많은 도움을 교환하며, 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면 살수록 그 교환은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동 거주 조건하에서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 관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거 관계에서 오는 가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생활 속 교류이다. 그러한 생활 속 교류는 상호 부조의 형태로서 경제적 교류, 정서적 교류, 서비스적 교류로 구분된다. 서비스적 교류는 식사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 손자녀 돌보기 등 일상 생활에 대하여 가족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다(윤진, 1986; 장선주, 1989; 홍달아기, 1998). 김태현과 임선영(2003)은 20~30대 미혼·기혼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이념, 생활 교류,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성인 세대의 경우, 부모와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일상 생활

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미혼 여성의 현재 가사 노동의 참여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 노동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가사 노동 참여의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도움과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미혼 자녀는 주로 도움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2) 취미·레저 여가 활동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용준, 1990; 이정숙, 1999; 조주란, 1996), 직장인을 대상(이재기, 1994; 이정숙, 1999)으로 한 여가 활동 실태와 여가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거주 형태에 따른 여가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나 미혼 여성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선행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보고된다. 여가 활동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가사 지원을 통해 미혼 취업 여성의 여가 선용에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변인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3) 생활비, 저축 비중

김혜림(2003)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자

녀는 생활 비용은 본인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주 자립도와 혼인 자립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적었다. 즉, 생활 비용 측면에서는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였으나, 거주 비용과 혼인 비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 상태 여부에 대한 구분이 없어 미혼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혜영(2005)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과 집안일(청소, 장보기, 빨래, 식사준비)등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점을 거의 없음, 2점을 없는 편임, 3점을 자주 있음, 4점을 매우 자주 있음으로 점수화하여 보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1.6점, 집안일 도움은 1.6점으로 두 항목 모두 거의 없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미혼 성인 자녀의 대부분은 생활비에 있어서는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거나 결혼 비용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측정하여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부모 자녀 간 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부모 자녀 간 만남의 교류도 빈번하지 않았으며, 주거 독립의 상태로 생활비나 경제적 지원도 거의 받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유추하건대 이와 반대로 함께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 1인 가구 자녀의 경우보다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지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미혼취업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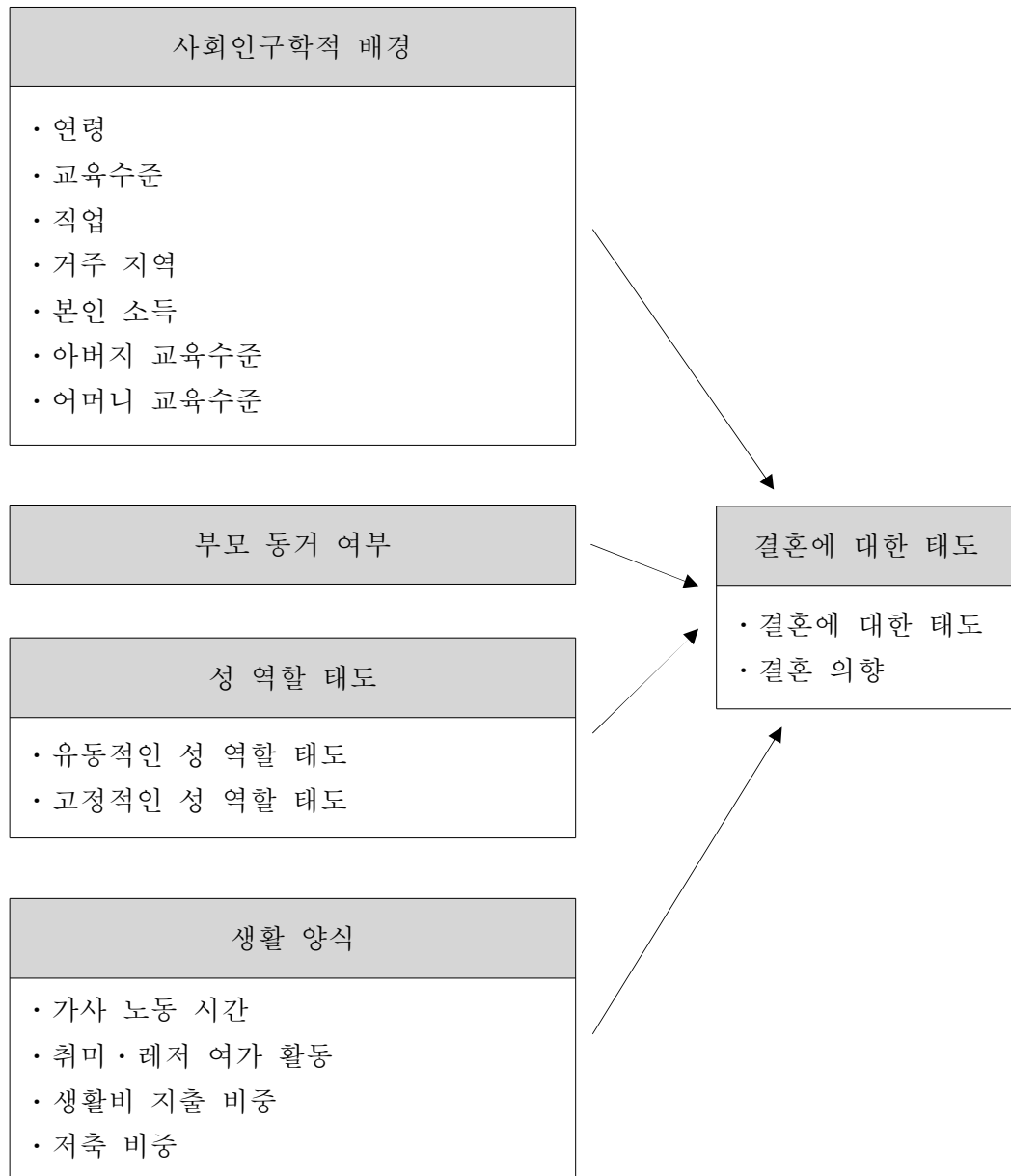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모형



연구 표본: 미혼, 여성, 25~40세, 취업자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및 표본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로 여성 가구원이 있는 전국(제주도 포함) 가구 중에서 추출된 총 9,084 가구 및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64세 여성 10,013명을 표본으로 한 자료이다.

설문지는 가구관련, 여성 개인 관련, 일자리 관련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용은 조사대상인 만 19세에서 64세 여성 중 가구를 대표하여 가구의 상황을 응답할 수 있는 응답자가 작성하였다. 가구원의 일반적 사항,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 개인용과 일자리용은 조사대상 여성 응답자 모두가 응답하는 설문으로 교육과 성장, 직장생활, 결혼과 결혼 생활, 다양한 결혼 유형의 경험, 가족과의 관계, 부양 가족, 가족관련 가치관, 개인 특성/건강/여가, 노후 생활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개인의 생활 세계를 생애 주기별, 주제별로 구성하였다. 일자리용은 현재의 경제 활동 상태, 고용상태별 근로 여건, 일 만족도, 주된 일을 제외한 일, 현재 미취업 상태, 이전 일자리,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보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차별 사항, 모성 보호 제도 등 여성의 일에 대한 경험을 생애 주기 및 가족 관계와 접목시켜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여성가족패널조사 유저가이드, 2007).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용, 일자리용 설문 항목 중 미혼취업여성 응답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2) 표본

본 연구를 위한 분석 표본은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혼인 여부, 연령,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부모와의 동거 여부 측정이 가능한 여성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적인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
- 둘째,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
- 셋째, 취업 상태로 소득이 있는 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총 464명이며, 그 중 부모와 동거하는 25~40세 사이의 미혼취업여성은 302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5%를 차지했다. 반면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25~40세 사이의 미혼취업여성은 162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35%를 차지했다.

<표 2> 연구 표본

연구표본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여성, 미혼, 25~40세, 취업자	302명(65%)	162명(35%)
전체	총 464명(100%)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 월 평균 본인 소득,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부모 동거 여부(동거, 비동거), 성 역할 태도(유동적 성 역할 태도, 고정적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중, 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미혼 취업 여성의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동거 여부,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N=464)

변수(준거집단)		측정방법	N(%)	M(SD)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배경	연령	25~40세, 연속변수	29.4(3.9)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대학원이상	27(5.8)
			대학교이상	344(74.1)
			고등학교이하	93(20.0)
			전체	464(100)
		직업 (생산노무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1(45.5)
			사무직	146(31.5)
			판매서비스직	77(16.6)
			생산노무직	21(4.5)
			전체	455(100)
		거주 지역 (기타)	대도시(서울, 광역시)	276(59.5)
			기타(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	188(40.5)
			전체	464(100)
		월평균 본인소득	단위: 만원, 연속변수	159.1(131.2)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이상	75(16.2)
			고등학교이하	389(83.8)
			전체	464(100)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이상	25(5.4)
			고등학교이하	435(93.8)
			전체	460(1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02(65.0)	
		부모 비동거	162(35.0)	
		전체	464(100)	
성 역할 태도 ¹⁾		유동적 성 역할 태도	318(68.5)	
		고정적 성 역할 태도	144(31.0)	
		전체	462(100)	
생활 양식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단위: 시간, 연속변수		4시간 22분 (316.9)
	지난 한 달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가끔)	자주(일주일에 1~3회)	141(30.4)	
		가끔(한 달에 1~3회)	142(30.6)	
		안함(전혀 안함)	181(39.0)	
		전체	464(100)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	단위=백분율(%)		42.1(27.4)
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	단위=백분율(%)		35.5(24.9)	
종속 변수	결혼에 대한 태도	6~24점 ☞ 점수 높을 수록 긍정적		13.6(2.8)
		결혼 의향	있다	370(79.7)
		없다	94(20.3)	
		전체	464(100)	

1) 문항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향의 두 변인이다.

먼저, 결혼에 대한 태도는 <표 4>에 제시된 6문항의 합으로 점수화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반대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Cronbach’s α 는 .702 이었다.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평균 13.6점이었다.

결혼 의향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 ‘결혼할 의향이 없다’, ‘모르겠다’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결혼할 의향이 없다’와 ‘모르겠다’를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여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 미혼 취업 여성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464명 중 370명으로 79.7%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94명으로 20.3%로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4> 결혼에 대한 태도 변인 문항 및 신뢰도

결혼에 대한 태도	Cronbach’s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을 해야만 완전한 성인이 된다* -결혼해서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겐 매우 중요하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받는다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702

* 역채점 문항

(2) 독립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를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464명 중 302명으로 65%였으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162명으로 35%였다. 미혼 취업 여성 중 과반수 이상이 아직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태도는 문항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여성은 ‘고정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여성은 ‘유동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분화하였다.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는 남녀의 구분에 의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4명(31.0%)이었다. 이에 반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공유나 뒤바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318명(68.5%)이었다.

생활 양식은 가사 노동 시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 생활비와 저축 비중으로 이루어졌다. 가사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4시간 22분이었다.

미혼 취업 여성이 지난 한 달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에 참여한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일주일에 1~3회’ 참여한다고 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자주’하는 것으로, ‘한 달에 1~3회’ 참여한다고 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가끔’하는 것으로, 여가 활동을 ‘전혀 안 한다’고 답한 경우를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여가 활동을 ‘자주’ 한다는 여성은 141명으로 전체의 30.4%를, ‘가끔’ 한다는 여성은 142명으로 30.6%를, ‘안 한다’는 여성은 181명으로

39%를 나타내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본인 소득 중 생활비와 저축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로 답하였다.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의 평균은 42.1%를, 저축 비중의 평균은 35.5%를 나타내어, 생활비와 저축 모두 본인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3) 통계 변수(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혼 취업 여성은 1968년에서 1981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9.4세이었다. 통계청(2008)이 발표한 2007년 미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인 '28.1세'보다는 1.3세 많은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답한 여성이 93명으로 20%를,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답한 여성이 344명으로 74.1%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답한 여성이 27명으로 5.8%였다. 미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을 반영한 결과로 미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총 10개로 분류된 것을 성격에 따라 4가지로 유목화하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11명으로 45.5%, '사무직'은 146명으로 31.5%, '판매서비스직'은 77명으로 16.6%, '생산노무직'은 21명으로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통계청(2005)의 25~39세 사이 여성의 직업분포를 조사한 통계에 나타난, '전문·기술·행정 관리자'는 92만 7천여 명(32.7%), '사무직'은 79만 5천여 명(28.0%), '판매서비스직'은 72만 7천여 명(25.7%), '생산노무직'은 37만 4천여 명(13.2%)의 순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고 보여진다.¹⁾

1) 통계청의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여성 전체의 직업 분포를 보았을 때,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문·기술·행정 관리자'가 2.8% 상승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 지역은 서울,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도시 거주자로 분류하였고, 그 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을 기타 지역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미혼 취업 여성 중 대도시 거주자는 276명(59.5%), 기타 지역 거주자는 188명(40.5%)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더 많았다.

본인 소득은 월 평균 금액으로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적인 월 평균 본인 소득은 159만 1천원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고려하였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나누었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인 아버지는 75명(16.2%),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아버지는 389명(83.8%)로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교 이상이 25명(5.4%), 고등학교 이하가 435명(93.8%)로 아버지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 월평균 본인 소득,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을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과 χ^2 검증을 실시하여 빈도와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전체	t/ χ^2
		n(%)	M(SD)	n(%)	M(SD)		
연령		302(100)	28.8(3.5)	162(100)	30.5(4.3)		-4.391***
교육 수준	대학원이상	15(5.0)		12(7.4)		27(100)	2.696
		(55.6)		(44.4)			
	대학교이상	231(76.5)		113(69.8)		344(100)	
		(67.2)		(32.8)			
	고등학교이하	56(18.5)		37(22.8)		93(100)	
		(60.2)		(39.8)			
	↓전체	302(100)		162(100)			
직업 ¹⁾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134(45.4)		77(48.1)		211(100)	10.378*
		(63.5)		(36.5)			
	사무직	107(36.3)		39(24.4)		146(100)	
		(73.3)		(26.7)			
	판매서비스직	40(13.6)		37(23.1)		77(100)	
		(51.9)		(48.1)			
	생산노무직	14(4.7)		7(4.4)		21(100)	
		(66.7)		(33.3)			
	↓전체	295(100)		160(100)			

거주 지역	대도시	185(61.3) (67.0)		91(56.2) (33.0)		276(100)	1.131
	기타	117(38.7) (62.2)		71(43.8) (37.8)		188(100)	
	↓ 전체	302(100)		162(100)			
월평균본인소득		302(100)	131.7(67.3)	162(100)	181.6(201.4)		-3.064**
아버지 교육 수준	대학교이상	44(14.6) (58.7)		31(19.1) (41.3)		75(100)	1.622
	고등학교이하	258(85.4) (66.3)		131(80.9) (33.7)		389(100)	
	↓ 전체	302(100)		162(100)			
어머니 교육 수준 ²⁾	대학교이상	11(3.7) (44.0)		14(8.8) (56.0)		25(100)	5.370*
	고등학교이하	290(96.3) (66.7)		145(91.2) (33.3)		435(100)	
	↓ 전체	301(100)		159(100)			

* $p < .05$, ** $p < .01$, *** $p < .001$

1) 직업(n=455) 2) 어머니 교육수준(n=462)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28.8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30.5세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여성보다 약 1.7세 나이가 더 많았고,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1$). 두 집단 모두 통계청(2008)이 발표한 2007년 미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인 ‘28.1세’보다 연령이 더 높은 결과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약 1.7세 더 많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56명으로 18.5%, ‘대학교 이상’이 231명으로 76.5%, ‘대학원 이상’이 15명으로 5%를 차지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도 비슷한 분포 수준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이하’가 37명으로 22.8%, ‘대학교 이상’이 113명으

로 69.8%, '대학원 이상'이 12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 미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을 반영한 결과로 미혼 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육수준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도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집단간 직업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34명으로 45.4%, '사무직'이 107명으로 36.3%, '판매서비스직'이 40명으로 13.6%, '생산노무직'이 14명으로 4.7%를 차지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77명인 48.1%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 중 '사무직'은 39명인 24.4%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은 37명인 23.1%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 중 '생산노무직'은 7명인 4.4%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두 집단의 직업 분포 비율의 순위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의 순으로 일치하였다. 모든 직업군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51.9%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48.1%를 나타내어 다른 직업에 비해 두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거주 지역은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인 '대도시' 거주자가 185명인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기타'(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117명,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취업여성의 경우는 ‘대도시’ 거주자가 91명인 56.2%, 그 외 ‘기타’지역 거주자가 71명인 43.8%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처럼 ‘대도시’ 거주자가 절반 이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비율보다는 조금 낮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도시 거주자나 기타 지역 거주자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31만 6천 9백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81만 6천 백원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1$). 소득이 더 많을 경우 독립가구를 형성할 경제적 여건의 성립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교육수준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이하’는 258명인 85.4%이고, ‘대학교 이상’이 44명인 14.6%였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는 ‘대학교 이상’이 131명인 80.9%, ‘고등학교 이하’가 31명인 19.1%였다. 부모 동거 미혼 취업 여성의 아버지가 ‘대학교 이상’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취업여성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아버지 비율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서구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딸을 독립시키는 것에 좀 더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가치관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대학교 이상’인 경우는 11명으로 3.7%를, ‘고등학교 이하’가 290명으로 96.3%를 차지했고, 부모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교 이상’이

14명으로 8.8%, ‘고등학교 이하’가 145명으로 91.2%를 차지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56%,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44%,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33.3%,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66.7%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서구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딸을 독립시키는데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성 역할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생활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취미·레저 여가 활동, 가사 노동 시간, 생활비 지출 비중, 저축 비중의 빈도와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 및 생활 양식의 차이

(N=464)

생활양식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전체	t/ χ^2
		n(%) / M(SD)	n(%) / M(SD)		
성 역할 태도 ¹⁾	유동적	209(69.4) (65.7)	109(67.7) (34.3)	318(100)	.147
	고정적	92(30.6) (63.9)	52(32.3) (36.1)	144(100)	
	↓ 전체	301(100)	161(100)		
지난 한 달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	자주	79(26.2) (56.0)	62(38.3) (44.0)	141(100)	7.526*
	가끔	100(33.1) (70.4)	42(25.9) (29.6)	142(100)	
	안함	123(40.7) (68.0)	58(35.8) (32.0)	181(100)	
	↓ 전체	302(100)	162(100)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2시간27분(195.8)	7시간56분(382.3)		114.072***
본인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 ²⁾		39.6(28.5)	46.7(24.7)		-2.696**
본인 소득 대비 저축 비중 ³⁾		37.5(25.9)	31.7(22.5)		2.510**

* $p < .05$, ** $p < .01$, *** $p < .001$

¹⁾ 성 역할 태도(n=462) ²⁾ 생활비 비중(n=462), 단위=% ³⁾ 저축 비중(n=461), 단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성 역할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209명(69.4%)이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졌고, 92명(63.9%)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져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비율을 보였다. 성 역할 태도의 두 경우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태도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자체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양식인 취미·레저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지난 한 달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경우 123명인 40.7%, '가끔 한다'는 경우가 100명인 33.1%, '자주 한다'는 경우가 79명인 26.2%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취미·레저 여가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자주 한다'는 여성이 62명인 38.3%, '전혀 하지 않았다'는 여성이 58명인 35.8%, '가끔 한다'는 여성이 42명인 25.9% 순으로 나타나, 취미·레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 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율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분화되는 양상을 보여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취미·레저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데 제약이 없어 개인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일주일에 가사 노동 시간이 약 2시간 27분을 나타냈으며, 부모와 동거하

지 않는 경우, 일주일에 가사 노동 시간이 약 7시간 5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5시간 29분으로 그 차이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White와 Rogers(1997)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만큼 부모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눈에 띄는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어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탈피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山田昌弘(1999)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동거 여성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음에도 취미·레저 여가 활동에 있어 참여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부모의 간섭과 영향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본인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본인 소득 중 생활비 지출과 저축의 비중을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지출 비중, 저축 비중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p < .01$).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본인 소득 중 생활비의 지출 비중은 평균 39.56%,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46.71%를 나타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의 지출이 비교적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생활비에 있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생활비 지출 비중이 적어 좀 더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의 반영으로 저축에 있어 생활비 지출이 적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37.54%로 부

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3%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의 종속변인으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점수화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결혼 의향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종속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최대치가 .495이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산팽창요인(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중첩성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결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인들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점수화하여 종속변인으로 삼고, 부모 동거 여부, 생활 양식, 성 역할 태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회귀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403)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부모 동거 여부 ¹⁾	.644*	.111	.676*	.117	.721*	.125	.447	.077
가사 노동 시간			.002	.011	-.002	-.013	-.003	-.019
취미 레저 여가 활동 ²⁾								
생활양식	자주		-.139	-.023	-.004	-.001	-.083	-.014
	안함		-.381	-.067	-.455	-.080	-.397	-.070
	생활비지출 비중		.004	.021	.004	.020	.012	.055
	저축 비중		.002	.013	.001	.004	.000	-.002
성 역할 태도 ³⁾					-1.527***	-.258	-1.523***	-.257
연령							-.087*	-.123
교육수준 ⁴⁾								
사회인	대학원 이상						.402	.033
	대학교 이상						.220	.034
구직배경	직업 ⁵⁾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87	.088
	사무직						.811	.138
배경	판매직						.370	.049
	거주 지역 ⁶⁾						.093	.017
	월 평균 본인 소득						-.171	-.030
	아버지 대학교이상 ⁷⁾						.936*	.126
어머니 대학교이상 ⁸⁾							-1.124	-.089
상수항	13.191***		13.383***		14.359***		17.030***	
F	5.041*		1.105		4.986***		3.026***	
R ²	.012		.016		.081		.118	

* $p < .05$, ** $p < .01$, *** $p < .001$

기준변수: 1)비동거 2)가끔 3)고정적 4)고등학교이하 5)생산노무직 6)기타 7)8)고등학교이하

분석모형1은 부모 동거 여부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모형2는 모형1에 생활 양식 변인군이 추가되어 부모 동거 여부의 영향력이 고려된 후, 생활 양식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분석 모형이며, 모형3은 모형2에 성 역할 태도를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와 생활 양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 성 역할 태도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 마지막 모형4는 모형3에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을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 생활 양식,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 사회인구학적 배경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

우선 모형1을 보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부모 동거 여부는 종속변인인 결혼에 대한 태도의 전체 변량을 1.2%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041^*$). 모형1에서 부모 동거 여부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p<.05$).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644점 정도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생활 양식 변인 4개를 모형1에 추가한 분석 모형이다. 부모 동거 여부와 생활 양식 변인군 전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전체 변량을 1.6%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05$). 모형2에서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4개의 변인 모두 결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형1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모형2에서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5$).

모형3은 성 역할 태도를 모형2에 추가한 분석 모형인데, 모형3 전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량을 약 8.1%가량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986^{***}$).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추가로 투입된 성 역할 태도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으며 ($p<.001$), 이는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258점 정도 감소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모형1, 모형2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성 역할 태도가 추가된 모형3에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모든 독립변인들이 함께 투입된 모형4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모형3에 추가한 분석 모형으로, 모형4 전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량을 1.18% 정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26^{***}$).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추가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서 연령과 아버지 교육수준만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으며 ($p<.05$), 이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087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이하인 경우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약 0.936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아버지 교육수준이 더 높은 미혼 취업 여성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추가된 모형4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종분석에 추가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 의해 부모 동거 여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성 역할 태도는 모형4에서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결혼 의향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인들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 의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모 동거 여부, 생활 양식, 성 역할 태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회귀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1은 부모 동거 여부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모형2는 모형1에 생활 양식 변인군이 추가되어 부모 동거 여부의 영향력이 고려된 후, 생활 양식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분석 모형이며, 모형3은 모형2에 성 역할 태도를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와 생활 양식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 성 역할 태도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 마지막 모형4는 모형3에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을 추가하여 부모 동거 여부, 생활 양식,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 사회인구학적 배경만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03)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부모동거여부 ²⁾	.782*	.256	2.186	.758*	.278	2.134	.792*	.281	2.209	.698*	.308	2.009
가사 노동 시간				-.005	.008	.995	-.007	.008	.993	-.005	.008	.995
취미레저여가활동 ³⁾												
생활 양식												
자주				.590*	.346	1.804	.663*	.351	1.941	.537	.360	1.710
안함				.045	.303	1.046	.013	.305	1.013	.121	.323	1.129
생활비 비중				-.010	.012	.990	-.011	.012	.990	-.007	.013	.993
저축 비중				-.001	.007	.999	-.002	.008	.998	-.005	.008	.995
성 역할 태도 ⁴⁾							-.617*	.300	.539	-.692*	.310	.500
연령										-.061*	.033	.941
교육수준 ⁵⁾												
대학원 이상										1.067	.763	2.905
대학교 이상										.465	.399	1.592
사회인 직업 ⁶⁾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068	.655	.934
학적 사무직										.532	.657	1.702
배경 판매직										.236	.656	1.266
거주 지역 ⁷⁾										.099	.274	1.104
월평균본인소득										.345	.307	1.412
아버지대학이상 ⁸⁾										-.286	.398	.751
어머니대학이상 ⁹⁾										-.081	.645	.923
상수항	.961*	.188	2.615	.768*	.287	2.155	1.172***	.355	3.230	.804	1.786	2.234
분류정확 %			80.6			80.6			80.6			81.1
-2LL			386.754			381.664			377.168			364.394
Model χ^2			9.256**			14.346*			18.842**			31.616*

* $p < .05$, ** $p < .01$, *** $p < .001$

기준변수: 1)없다 2)비동거 3)가끔 4)고정적 5) 8) 9)고등학교이하 6)생산노무직 7)기타

χ^2 을 이용한 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모형1은 $p < .01$, 모형2는 $p < .05$, 모형3은 $p < .01$, 모형4는 $p < .05$ 수준에서 각 실증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각 단계별 회귀분석 수행에 따라 80.6%로 모형3까지 동일하다가 마지막 모형4에서는 81.1%로 증가하였다. -2LL 값은 점차 작아지고, χ^2 값은 점차 커져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시로 인하여 모형이 더욱 적합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모형1을 보면, 부모 동거 여부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1$).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2.186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형2는 생활 양식 변인 4개를 모형1에 추가한 분석모형이다. 모형2에서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4개의 변인 중 취미·레저 여가 활동만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취미·레저여가활동에 있어 가끔 하는 경우보다 자주하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1.804배 높아진다. 또한 모형1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모형2에서도 여전히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1$).

모형3은 성 역할 태도를 모형2에 추가한 분석 모형인데,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추가로 투입된 성 역할 태도는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고정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0.539배 낮아진다는 것이다. 모형1, 모형2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부모 동거 여부는 성 역할 태도가 추가된 모형3에서도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리고 모형2, 모형3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관찰되었던 취미·레저 여가 활동 변인도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모든 독립변인들이 함께 투입된 모형4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모형3에 추가한 분석 모형이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추가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에서 오직 연령만이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p < .05$). 이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약 0.941배 낮아지는 결과이다. 모형2, 모형3에서 유의미했던 취미·레저 여가 활동의 영향은 최종 모델에 와서 영향력이 사라졌다. 모형3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던 성역할 태도 역시 모형4에서도 결혼 의향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7>과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동거, 여가 활동, 성 역할 태도,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이었다. 즉,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할 때, 취미·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 성 역할 태도가 고정적일 때, 연령이 감소할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모델에 이르러서는 이전 모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 동거 여부 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약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결론 및 제언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역할 태도, 생활 양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직업, 본인 소득, 어머니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약 28.8세)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 연령(약 30.5세)보다 약 1.7세 어렸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5.4%), ‘사무직’(36.3%), ‘판매서비스직’(13.6%), ‘생산노무직’(4.7%)의 직업 비율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8.1%), ‘사무직’(24.4%), ‘판매서비스직’(23.1%), ‘생산노무직’(4.4%)순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사무직’ 비율이 더 높고, ‘판매서비스직’ 비율은 더 낮았다.

월 평균 본인 소득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31만 6천 9백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평균이 181만 6천 백원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1$). 소득이 더 많을 경우 독립가구를 형성할 경제적 여건의 성립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거주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교육수준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5$).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대학교 이상’인 경우는 11명으로 3.7%를, ‘고등학교 이하’가 290명으로 96.3%를 차지했고, 부모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는 ‘대학교 이상’이 14명으로 8.8%, ‘고등학교 이하’가 145명으로 91.2%를 차지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56%,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44%,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33.3%,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66.7%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서구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딸을 독립시키는 데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 역할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양식인 여가 활동, 가사 노동 시간, 생활비 비중, 저축 비중의 네 가지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지난 한 달간 취미·레저 여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경우 123명인 40.7%, ‘가끔 한다’는 경우가 100명인 33.1%, ‘자주 한다’는 경우가 79명인 26.2%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은 취미·레저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자주 한다’는 여성이 62명인 38.3%, ‘전혀 하

지 않았다’는 여성이 58명인 35.8%, ‘가끔 한다’는 여성이 42명인 25.9% 순으로 나타나, 취미·레저 활동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 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율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분화되는 양상을 보여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취미·레저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데 제약이 없어 개인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취미·레저 여가 활동의 모든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일주일에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약 2시간 27분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주일에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약 7시간 5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5시간 29분으로 그 차이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White와 Rogers(1997)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만큼 부모에게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눈에 띄는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어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탈피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山田昌弘(1999)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동거 여성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음에도 취미·레저 여가 활동에 있어 참여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부

모의 간섭과 영향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본인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본인 소득 중 생활비의 지출 비중은 평균 39.56%,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은 46.71%를 나타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의 지출이 비교적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생활비에 있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보다 생활비 지출 비중이 적어 좀 더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의 반영으로 저축에 있어 생활비 지출이 적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 여성이 37.54%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의 31.73% 보다 더 높은 저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동거, 여가 활동, 성 역할 태도,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 취업 여성이 부모와 동거할 때, 취미·레저 여가 활동 참여가 활발할 때, 성 역할 태도가 고정적일 때, 연령이 감소할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부모 동거 여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반된 두 견해가 있는데, 樋口와 阿部(1999)는 山田昌弘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동거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춘다고 하여, 이는 곧 부모 동거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결혼 의향을 낮춤으로써 실제 유배우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이다. 반면, 김정석(2006)은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취업 여성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후자인 김정석(2006)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 가구를 형성한 미혼 여성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결혼 압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덜 받거나, 부모의 결혼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져 다소 부정적인 결혼 태도를 형성하거나, 결혼 의향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한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한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취미·레저 여가 활동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미·레저 여가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가끔 하는 경우보다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성 역할 태도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동원 등(1995)도 고정적인 성 역할 모델 보다 유동적인 성 역할 모델을 선호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결혼 회피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성들의 인식은 고정적인 성 역할 인식에서 자유로운 태도로 바뀌어 가는데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역할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결혼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녀에 따른 성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보는 미혼 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김예리(2008), 김정석(2003), 양명숙(199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실제 결혼을 하면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증가할 때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적어진다고 보고한 김모임(1973), 김정석(2006), Lee 등(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더 이상 결혼 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서, 고연령층의 장기적인 미혼화가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연령 규범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 계층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김보경과 김한곤(2005)의 주장과는 일맥하는 결과이긴 하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실태 조사에 머물러 오던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사점과 의의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미혼 취업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였고,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 장려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 많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연령이 여성의 생활 및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대 별 미혼 여성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결혼 장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20대 초반부터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모 동거 여부는 부분적으로나마 미혼 취업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보다 결혼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고, 소득이 더 많으며,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입지와 자유로운 주거 생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적인 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결혼의 속박에 대한 거부감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보다 더 크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 의식주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추측

된다. 부모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은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부모와의 생활에서 결혼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보험 효과', '규모의 효과'와 같은 결혼으로부터 얻는 이득 및 자녀의 의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적절한 분리를 통해 결혼이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가족 형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유동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더 이상 성 역할에 고정된 삶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실제 결혼을 하면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와 이상의 괴리로 미혼 여성은 결혼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양육,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역할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평생 미혼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통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미혼 취업 여성의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 4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부모 동거 여부별로 사례를 구분하게 됨에 따라 차이검증이나 영향력 분석에 있어 일반화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미혼 취업 여성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실생활의 차이가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지만, 패널의 문항의 한계로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은 고려하지 못하였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맥락에서 간주되는 변인들로 대체한 제한점이 있었다. 부모의 계층을 질문한 문항이 없어 부모의 교육수준을 대체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정확한 부모의 계층을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생활 양식 변인을 본 연구자의 의도대로 규정할 수 없어 영향 변수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차이검증에서 분명한 생활 양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가재산(2007). 성공에너지 어닝파워. 로그인(이퍼블릭).
- 강은영(2007). 사무직 미혼 여성의 혼인지연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학회.
- 권미애 · 김태현(2004). 30대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분화, 표현된 정서가 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97-210.
- 김경신 · 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경원(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경원 · 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동일(1991).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 김모임(1973). 한국 3개 지역의 결혼, 결혼연령 및 출산력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3), 1-14.
- 김보경 · 김한곤(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2), 45-73.
- 김승권(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12).
-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9-44.
- 김예리(2008).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준(1990). 상황변인이 주관적 여가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

- 이선학회지, 7(1), 44-62.
- 김유경(1990). 결혼율 및 초혼연령의 변동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우리나라인구 인구변동의 분석. 293-358.
- 김은영 · 김지현 · 윤승연 · 이은술 · 정유진 · 차화진 · 최숙경 · 홍은미 · 황지원 (1998). 대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1, 90-94.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생활과학회, 22, 97-116.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철자(1977). 인천교대생의 결혼관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5('77.2), 77-100.
- 김태현 · 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김혜림(2003). 생애 전이 경험과 경제 자립도가 성인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5).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향(1969). 졸업반 여대생들의 결혼관의 조사연구. 사회학지, 1, 22-35.
- 문숙재 · 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요인 분석: 성인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자원교류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1).
-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회, 28(2), 33-62.
- 박경애(1993). 성비가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7(2), 153-166.
- 박민자(2004).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소진(2007). 성인 미혼남녀가 지각한 독립성과 부모의 결혼만족도. 상명대

-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박세훈 역(2008). 유엔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0), 163-171.
- 배희선(1999). 중 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 기준.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송은경(2005). 성인자녀와 비동거 부모간의 경제적 자원교류 행동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2001). 성격심리학. 서울: 하우.
- 안호용·김홍주(2000). 한국 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학, 3, 89-132.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 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양재모·김모임·공정자(1980). 결혼연령의 상관요인과 이의 인구고질 정책으로서의 의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시리즈 2 한국가족계획연구원, 853-898.
- 유영주(1984). 신가족 사회학. 서울:교문사.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윤진(1986). 발달단계와 의존동기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1(2), 204-233.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 이동원·김모란·김현주(1995).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66,1·66,2·66,3('95.11). 191-212.
- 이삼식(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

- 연구, 26(2), 97-140.
- 이소영 · 황선진(2003). 20·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267-281.
-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이수현 · 정진영 · 조경호 · 최지혜(1996). 도시여성의 가사노동 분담기대도 및 가족의 참여도.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회, 15, 19-46.
- 이영훈(1977). 우리나라 부인의 결혼연령변동과 출산력. 가족계획논집, 4, 71-92.
- 이인수(1994).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1940,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0.
- 이정숙(1999). 미혼 직장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0, 33-42.
- 이정연(2000). 미혼독신세대의 실태와 전망.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이재기(1994). 직장인의 여가 및 스포츠활동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1999). 미혼 직장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1), 33-42.
- 이진하 · 최연실(200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75-92.
- 임유진(200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조은희(1996). 노부모와 기혼 자녀의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란(1996). 남녀 대학생의 여가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강릉지방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금·어성연·고선강(2008).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전문·준전문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학술연구보고서.

최새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최 순(1972).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초혼 양상 가족계획 연구. 3, 70-77.

통계청(1995, 2000, 2005).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통계.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개발원(2009).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한경혜·윤순덕(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연구, 14(2), 105-120.

함인희(2002). 한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문화, 14(3), 164-184.

홍달아기(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과지, 130, 115-12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여성가족패널조사 유저가이드 <http://klowf.kwdi.re.kr/ko/main.html>

滋野由紀子·大日康史(시게노 유키코·다이니치 코지)(1997). 女性の結婚選擇と就業選擇に關する一考察. 家計經濟研究, 36, 61-71.

- 小谷敏(코다니 사토시)(1999). 若者たちの変貌 世代をめぐる社會學的物語. 世界思想社.
- 樋口美雄・阿部正浩.(히구치 미유・아베 마사히로)(1999). 結濟變動との結婚・出生・就業のタイミソグ. 東洋經濟新報社, 25-65.
- 山田昌弘(야마다 마사히로)(1999). 김주희 역(2004).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K. H., M. A. Hill & J. S. Butler(1987). Age at marriage in Malaysia:A hazard model of marriage timin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6, 223-234.
- Axinn, W. G. & A. Thornton(1992). The influence of parental resources on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Social Science Research*, 21, 61-85.
- Becker, Gary(1973). A theory of marriage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Beets(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eing of first birth: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 Bohannon, J. R., & Blanton, P. W.(1999). Gender role attitudes of American mothers and daughter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Psychol*, 139(2), 173-179.
- Carlson(1979). Family background, school, and early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41-353.
- Choe, Kim Minja & Li Lei(1997).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 Coony. T. M. & Hogan. D. P. (1991). Marriage in an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decision to mar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78-190.
- Glenn, N.(1996). Values, attitudes, and the state of American Marriage. In D. Popenoe, J. Elshtain, & D. Blankenhorn(Eds), *Promise to Keep: Decline and renewal of marriage in America*. Lanhm, MD: Rowman and Littlefield.
- Goldsheider. F. k. & L. J. Waite(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91-109.
- Koball, H(1998). Have African American men become less committed to marriage? Explaining the twentieth century racial cross-over in men's marriage timing. *Demography*, 35(2), 251-258.
- Lee, S. S., Jung, Y. S., Kim, H. G., Choi, E. Y., Park, S. G., Cho, N. H., Shin, I. C., Do, S. R., Cho, S. G., & Gang, J. H.(2006). A survey on the marital and ferility trends in 2005. Unpublished manuscript.
- Lloyd K. M. & S. J. South(1996). Contextual influences on young men's transition to frist marriage. *social Forces*, 74(3), 1097-1119.
- McLaughlin, D. K, & D. T. Lichter(1997). Poverty and marital behavior of you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582-594.
- Moon. O. (1990). Urban middle class wives in contemporary Korea their rples, responsibilities and dilemma. *Korea Journal*, 30(11), 30-43.
- Noriko. T. & M. K. Choe(1991). Changes in intrafamillal relationships and the roles of women in Japan and Korea. NUPRI Research Paper Series No.58. Tokyo :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 Oppenheimer. V. K.(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 Oppenheimer. V. K., M. Kalmijin & N. Lin(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2(3): 311-330.
- Palomba R, A. Menniti, & M.G. Caruso(1997).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11-17.
- Scott, J. & Tilly, L. A.(1975). Woman's work and family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7, 33-64.
- South. S. J. (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rist marriage: United State.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606-626.
- Spagnoli, P. G.(1983). Industrialization, proletarianization, and marriage: Areconsideration. *Journal of Family History*, 8(3), 230-247.
- Sweeney, M.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 132-147.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1987). Marital timing: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239-268.

Abstract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on Position about Marriage - Focused on the Presence of Their Parents as Common Dwellers

Seo, Ji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what effects the presence of parents of unmarried women as common dwell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had on their attitudes towards marriage in order to have a multilateral understanding of marriage avoidance that made unmarried persons remain unmarried and a phenomenon of marriage delay.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data extracted from the sample aged 40 years and under 25, unmarried working women in the study were 464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unmarried employed women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depending on whether they shared a common dwelling place with their parents. Then, it analyzed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attitud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towards marriag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unmarried employed women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depending on whether they shared a common dwelling place with their parents.

In terms of age, women who lived with parents (28.8 years old) were younger than those who did not live with parents (30.5 years old). As for occupation, the former group was more likely to work in the 'office' than the latter group and the rate of working as 'sales service representatives' was far lower. With regards to the monthly average income, the former group earned 1,316,900 won, while the latter group earned 1,816,100 won, which showed that the latter group earned about 0.5 million won more than the former group. Meanwhi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mothers of the latter group were slightly higher in educational level than those of the former group.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unmarried employed women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depending on whether they shared a common dwelling place with their par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lifestyle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women who lived with parents were less active than those who did not live with parents. The former group did about 2 hours and 27 minutes of housework a week, whereas the latter group did about 7 hours and 56 minutes of housework a week, which showed a difference of about 5 hours and 29 minutes. 39.6% of the income of the former group was spent for living expenses, while 46.7% of the income of the latter group was spent for living expenses.

Concerning the saving, 37.5% of the income of the former group was saved due to the fact that their living expenses were relatively small and economically better, whereas 31.7% of the income of the latter group was saved.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attitud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towards marriag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ir attitudes towards marriage were positive or the odds of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became high when they lived with their parents, when they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hobbies and leisure, when their gender role attitudes were fixed, when they were young and when the educational level of their fathers was high.